

신년사

친애하는 대한가정의학회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2001년을 보내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의약분업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인 모두 전문 지식인으로서 실로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질서와 비난 속에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우리 대한가정의학회 회원 여러분은 합심하여 일차의료를 아끼는 일념으로 어려움을 마다 않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였습니다. 불확실하고 더욱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면밀히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선배님들이 이룩해 온 업적들을 갈고 닦아 더욱 발전된 학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의료 환경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해나가지 못한다면 생존해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위의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변화들의 주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정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전과 오후가 다르게 바뀌어 가는 세상에서 낡은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의료인은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연한 사고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여서도 안 되지만 무작정 기다려서도 안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이 도약해야 하는 시대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이 정규 과정의 이사장이 학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고 대부분의 이사진이 정규 가정의학과 수련 출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가정의학과가 이 땅에 더욱 튼튼히 뿌리내리게 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차의료 전문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 가정의학의 깃발이 날리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주지회가 설립됨으로써 강원지회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모든 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 춘계 학술대회는 우리 나라 남단 제주도 서귀포에서 개최함으로써 새로이 출발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주지회가 설립되고 이를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나라 남단 끝에서부터 북단 북한 땅까지 가정의학의 기치를 높이 올리려는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홍보의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홍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홍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화이자(주)의 후원으로 디지털조선일보와 함께 벌이는 국민 건강 강좌와 건강 가족 걷기 대회는 대한가정의학회를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가정의학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서는 가정

의”를 비롯하여 “환자 교육용 소책자” 등도 가정의학을 홍보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하나 하나의 의료 행위가 다른 회원들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영향을 충분히 생각하여야 합니다. 근거 중심의 의료 생활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거 중심의 의료를 바탕으로 하는 가정의학 교과서 임상편의 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집필진들이 바쁜 시간을 내어 충실한 원고를 써 주셨습니다. 이 책의 출판은 우리의 일차의료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회지에도 일차의료에 관한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많은 논문들이 실려 회원들의 일차 의료 활동에 실제적인 많은 도움이 되고 일차의료가 학문적으로도 매우 중요함을 의료계와 관계 당국에 일깨워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식사회라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만큼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갖고 있는 학회가 없습니다. 지금 다수의 회원들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회는 회원들이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하겠지만 회원들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회원들의 이러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의료인은 질병이 걸렸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질병이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어 이를 제거하고 보다 건강한 수준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책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인의 역할은 우리 가정의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있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정보가 더 이상 어느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환자들이나 그 보호자들이 어떤 특정한 질병이나 건강문제에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을 보게됩니다. 의학적 지식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더 노력하여 환자와 국민에게 정성과 봉사의 의료를 전달하므로써 신뢰를 더욱 향상시키는 전화위복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에 찬 기대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대부분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며 한해를 보냅니다. 후회와 아쉬움으로 보낸 지난 한해의 빈 공간에 우리는 금년의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가득 채우면서 다시 힘차게 발걸음을 계속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 오르는 한편,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패러다임은 항상 어김없이 혼란과 고통 속에서 잉태하여 태어납니다. 그리고 전전한 비판과 충고는 자기발전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 학회는 우리 회원들 모두의 학회입니다. 모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결 해야할, 극복 해야할 문제와 난관들을 학회에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서로 돕고 양보하면서 지혜와 사랑을 모아 우리 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회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최 현 립